



연재를 시작하며...

해마다 봄이 되면 설렘으로 심장이 가득 차올라 살랑이는 바람에도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온몸이 기분 좋게 간질거린다. 무엇이든 다 잘 해낼 것만 같고 그 무엇을 꿈꾸든 멋지게 완성될 것만 같은 희망과 소망과 용기와 의지가 샘솟는다. 완전한 봄을 상징하는 3, 4, 5월은 움츠린 꽃봉오리에서 찬란하게 만개한 아름다운 꽃을 꿈꿔보는 호사를 누리는 시기이고 계절이다. 올해부터 저자 문지영은 이곳 도로교통협회지에 새로운 꽃을 피우길 고대한다. 문화 부문에서 도로와 인문학의 큰 꼭지 아래 <문화예술 속 교량의 미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보았다. 시간과 지면이 허락하는 날까지 이 미지(未知)의 동산(洞山)을 독자들과 함께 산책(散策)하고자 한다. 앞으로 동행할 이 길이 꽃길이 되기를 소망하며.

문학(시, 소설, 수필)·미술(회화, 조소, 공예, 영상)·공연(연극, 영화, 음악, 무용, 축제) 작품 속에서 교량의 미학적 가치를 찾아내는 흥미로운 탐험 길이 펼쳐질 것이다. 구체적인 큰 그림 없이 우선은 출발해 본다. 은은하고 매혹적인 꽃향기 맡으며, 지저귀는 새 소리에 귀 기울이며,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의 연록이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상상하며, 한 번씩 봄비에 훌쩍 젖어보기도 하고, 꽃가루에 연신 재채기도 해가면서, 한 걸음씩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과정을 충분히 즐기면서 나아갈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물 따라 바람 따라 여행하듯 동행(同行)하시길 바란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자면, 토목공학의 꽃이자 대표구조물인 '교량'을 대상으로, '기술적'인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인문학적'인 이야깃거리를 융합하며, 중간중간에 '미적(美的)'인 접근과 설명을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때로는 저자의 그림 작품과 함께 다채롭고 변화무쌍하게 펼쳐놓을 예정이다.

저자 문지영은 글 쓰는 작가이자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 저술서로는 ■내려놓기(2022년, 교보eBook 전자책)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2012년 초판, 2022년 초판3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미학적으로 교량보기(2014년 초판, 2015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2014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자연과 문명의 조화, 토목공학(2015년 초판, 2018년 개정판 공저, 초판3쇄+2판3쇄, 2018년 개정판 공저,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자연과학부문 선정) ■숫자로 보는 대한토목학회 70년(토목 70년(1951-2021), 그리고...)(2021년 공저, e-book+paper book) ■내가 사랑한 디노베이터 Design Innovator I loved(2020년 공저) ■서울대학교 토목공학의 100년 돌아보기(2016년 공저) ■생각을 말해봐(2015년 공저) ■현대 경관을 보는 열두 가지 시선(2006년 공저) 등이 있으며 ■다리 구조 교과서(2017년)는 감수했다. 화가로서의 활동은 준비 중이다. 유튜브 <나답게: 토목과 디자인 그리고 조경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2022년)>(https://youtu.be/njbSnpKd6g4) 영상에 보다 자세한 저자 소개를 담았다.

문지영 |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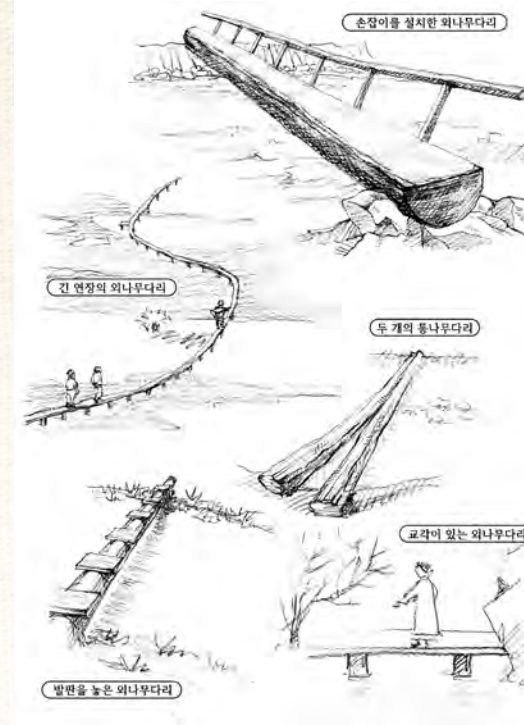
외고, 예술학박사, 조경학석사, 공학박사
(sieyoungmoon@gmail.com)





인생은 외나무다리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나 혼자 나만이 걸
어갈 수 있는 좁디좁은 다리 위를 위태롭게 한 발 한 발 내디
디며 나아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타인과 어깨를 나
란히 하고 손잡고 걸어갈 수 없는 교량의 태생적? 한계인 교
폭(橋幅; 다리 위 교면의 폭원) 때문에 각자가 혼자 가야만
한다. 앞으로 뒤로 줄줄이 함께 걸어갈 수도 있지만 서로의
보폭이 엉키는 날에는 모두가 다 같이 다리 위에서 떨어지
기에 십상이다. 외나무다리 아래가 협곡의 낭떠러지라면 특
히나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외나무다리 위 거닐기가 마냥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걸어가다 보면 얇은 개울 위에 놓이
기도 하니 혹은 무늬만 다리인 평지 위 외나무다리를 통과할
수도 있으니, 설사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면 그만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가설된 외나무다리를 만나면 두 다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편하게 지나갈 수 있다. 동그랗고 미끄러
운 통나무다리를 그대로 쓰러뜨려 놓은 것이 아닌, 교면 위
를 평평하게 재가공한 외나무다리 혹은 판판한 목재를 걸음
걸음마다 발판으로 올려놓은 다리, 왼발과 오른발의 자연스
러운 이동을 위해 통나무 두 개를 왼쪽용 오른쪽용으로 나란
히 준비해 놓은 다리(이 경우는 단 하나의 목재가 아닌 두 개
가 모여 하나의 외나무다리를 만든), 길게 늘어진 현수곡선
덩굴을 양측에 혹은 한쪽 측면에 손잡이로 준비해 놓거나,
가는 목재를 수직과 수평으로 혹은 경사를 두고 손스침 높
이에 난간으로 설치하기도 했으니, 이런 편리한 교량 구간을
만나면 감사하며 지나가면 된다. 어떤 외나무다리 길은 꽃밭
위에 놓여 걸어가는 내내 흥이 나고 향기가 가득하다. 일부
러라도 오래 머물며 감상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내 뒤
에 따라오는 이가 있다면 길을 막고 내 기분만을 욕심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도 앞뒤로 동행하는 이들과 함께 조금씩
은 머물러도 보고 천천히도 걸어가 보면서 풍경이 주는 유일
무이(唯一無二)한 순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지혜를 발휘
하길 바란다.

태초의 외나무다리는 조그마한 개울에 걸쳐 놓은 통나무다
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나무 한 그루를 덜컥 베어서
가로로 눕혀 끊어진 이곳과 저곳을 건너갈 수 있게끔 용도
를 급하게 변경한 구조재로서의 존재가 바로 이 통나무다리



〈그림1〉 여러 가지 형태의 외나무다리 스케치 (©문지영 그림)

이며 원시 외나무다리였을 것이다. 징검다리(답교)와
함께 태초의 다리(교량)로 쓰였으리라. 시간이 흐르고
인간의 지혜와 기술, 재료의 개발과 구조 발달이 더해
져 외나무다리가 더욱 튼튼해지고 길어지고 넓어지
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장대교량으로 발전과 변신을
거듭했음은 자명하다. 외나무다리의 원재료는 ‘나무
(木)’다. 나무는 석재(돌)나 오늘날의 철근콘크리트 재
료 등의 교량과는 확연히 다른 물성(物性)을 갖고 있
다. 영구불변이 아닌 생물, 부식, 파괴, 소멸에 취약한
연약성(軟弱性)을 지닌다. 인생길 또한 비슷하지 않나
싶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러지거나 부러질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 매일 매 순간에 감사하고 겸손해
야만 하는 게 인생길이기도 하니 더욱 그러하다. ‘인
생길, 외나무다리 길과 놀랍게도 똑 닮아있다.’

외나무다리 위를 걷는 방향은 원웨이 즉 일방향(一坊
向)이다. 한 사람만이 지날 수 있는 길이기때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 거꾸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뒤

66

인생길 또한 비슷하지 않나 싶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러지거나
부러질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
매일 매 순간에 감사하고 겸손해야만
하는 게 인생길이기도 하니
더욱 그러하다.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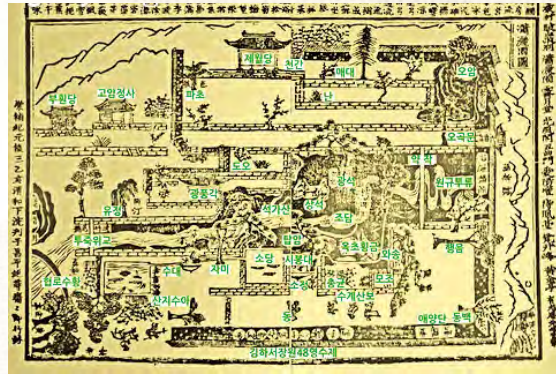
따르는 이가 없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이 일정 구
간에서는 가능할 수 있긴 하다. 옛 속담에 ‘원수는 외
나무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했다. 걸어가는 방향이 다
른 돌이 하필이면 외나무다리 위에서 만나는 거다. 이
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나 놀랍게도 옛 선
조들은 긴 외나무다리 길에서는 중간중간에 결다리
(공간)를 놓아두었다. 멀리서 오는 원수를 보면 잠시
다리 외곽(옆)으로 비켜서서 그분(원수 외)이 먼저 지
나가게끔 배려하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마저도 없
는 위태로운 장소에서 원수를 갑자기 정면으로 마주
하게 된다면? 독자들의 지혜에 해답을 맡겨본다.

외나무다리는 위태롭다. 형태가 그러하다. 따라서 다
리 위를 뛰어갈 수가 없다. 상황에 따라 빨리 걷기는
가능하겠으나 무리하면 바로 낙교(落橋)를 경험하게
된다. 급해도 천천히 균형을 잘 잡아가며 걸어야 안전
하다.

외나무다리를 이용한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었다. 과



〈그림2〉동자견려도 (©童子牽驢圖 부분, 김시 작)



〈그림3〉소쇄원도 속 외나무다리(약작) 위치도 (©게티이미지코리아)

거 동물들도 외나무다리를 건넜다(그림2). 소나 말을 이끌거나 직접 타고 다리 위를 지나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과 좁디좁은 다리 위를 통과할 때면 두 손과 두 발에 땀이 흥건하게 차올랐으리라. 어떻게 잘 건너간다? 이 또한 지혜롭게? 지혜가 없다면 바지를 걷어붙이고 물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거나 헤엄치며 이동했겠지?

옥산서원 앞 외나무다리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¹⁾ 서원으로 글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며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2미터 높이의 깊고 빠르게 가파른 계곡물에 잡념을 모두 흘려버리고 오로지 공부를 위한 정갈하고 곧은 마음만을 다잡아 다리를 건넌다. 외나무다리 바로 옆 용추(폭포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우렁찬 물소리가 다리를



〈사진1〉옥산서원 외나무다리 (©문지영)



〈사진2〉소쇄원 외나무다리(약작) (©문지영)

66

서원으로 가는 길은 많았다.
그러나 선조들은 이 외나무다리를
일부러 그곳에 위치시킴으로서
정신을 수양하게 장치를 걸어 놓았다.

99

건너는 이들의 심장을 조여준다.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 서원으로 오는 루트가 정코스인데, 놀랍게도 현장에 직접 가서 보거나 도면을 구해서 혹은 구글맵의 드론뷰로 확인해보면, 꼭 이 외나무다리를 건너야만 서원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서원으로 가는 길은 많았다. 그러나 선조들은 이 외나무다리를 일부러 그곳에 위치시킴으로서 정신을 수양하게 장치를 걸어 놓았다. 즉 의미론적(意味論的)인 대상으로서의 교량과 서원의 조경설계 의도를 읽고 확인할 수 있다. 담양 소쇄원에 가면 위교(危橋; 위태로운 교량, 약작)가 놓인 물줄기 상류에 외나무다리(약작)가 놓여있다. 아슬아슬하게 놓인 외나무다리인데, 세속의 번거로움이 스미지 못하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선 옥산서원의 외나무다리와의 비슷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다리를 통과하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효과와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에 세상사 온갖 번뇌를 떨쳐버리고 맑은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구하라는 의미가 공존한다. 개심사와 해인사 등 사찰(절)에서도 수로 위 외나무다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 역시 비슷한 용도와 의미로 쓰인다.

하근찬의 대표 단편소설 〈수난이대(受難二代)〉(사진3)에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겪은 삶을 또 다른 연장선상에서 헤쳐 나가야만 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외나무다리'가 등장한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노역으로 끌려가 노동 중에 한쪽 팔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이 6·25전쟁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외나무다리를 건너 아들을 마중하러 간다. 외나무다리 아래로 떨어졌던 기억을 씩씩하게 떠올리면서, 일종의 복선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외다리의 아들과 재회한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서 할 말을 잃는다. 팔 하나가 없는 아버지와 다리 하나가 없는 아들. 서로는 서로의 가슴을 각자 서럽게 쓸

1) 문지영(2022 초판 3쇄, 2012 초판),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pp.63, 64



〈사진3〉 수난이대 단편소설

어내린다. 다리가 하나 없는 아들을 한 팔만으로 업고 위태롭게 아까 지나왔던 그 외나무다리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읽는 내내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얼마나 서글프고 힘들었을까... 작가의 설정에기가 막혔다.

외나무다리는 홍수가 날 때면 하천의 금물살에 떠내려가기 일쑤였다. 따라서 지역 마을 주민들은 때가 되면 다 같이 다리를 복구하는 일에 애써야 했다. 이후 승려(僧侶)들이 주축을 이루어 튼튼한 흥예(아치) 돌다리(석교)가 가설되는 발전을 보이게 되는데, 그 이전엔 해마다 때마다 다리놓기가 행사였다. 이왕이면 즐겁게 다리를 가설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흥을 북돋우며 즐겁게 일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것이 지역 축제로까지 발전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노동요(勞動謠)도 신나게 부르면서 힘을 내면서 단합했겠지? 대표적인 다리 축제로는 ‘무섬 외나무다리 축제’가 있다(사진4, 사진5). 외나무다리 외 다리를 매개로 하는 지역전통축제와 행사는 더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른 호에서 메인 주제로 다시 한번 다루겠다.

66

한국전쟁 참전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외다리의 아들과 재회한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여서 할 말을 잃는다. 팔 하나가 없는 아버지와 다리 하나가 없는 아들. 서로는 서로의 가슴을 각자 서럽게 쓸어내린다.

99



〈사진4〉 무섬외나무다리축제 (©영주시 공식블로그)



〈사진5〉 무섬외나무다리축제 (©포토에세이 블로그)



〈그림4〉 매화초옥도 (©梅花草屋圖, 전기 작, 19세기 중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의 회화(繪畵) 속 외나무다리는 풍경화(風景畵) 속에 남몰래 슬쩍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²⁾ 매화초옥도(梅花草屋圖) 좌측 하단 코너에 등장한 다리는 교폭이 넓은 편에 속한다. 하나의 통나무다리를 외나무다리로 명명하는 것과는 구분 지어 설명하자면, 이 그림 속 교량은 홀로(외) 통행할 수 있는 외나무다리로 이해하면 된다. 정확하게는 목재형교이긴 하다. 잔뜩 찌푸린 하늘을 배경으로 눈송이처럼 황홀하게 핀 매화가 화면 전체를 화사하게 장식한다. 산 손 초옥에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피리를 불고 있는 선비가 다리가 놓인 쪽을 바라보며 앉아있다. 다리 위 인물은 거문고를 매고 있으며 다리를 건너서 가옥 속 인물을 만나러 가는 중으로 보인다. 김창원(2010)³⁾은 그림에

서 다리가 현실과 이상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문고를 지닌 이가 현실 세계에서 온 인물이고, 초옥 속 피리 부는 선비는 이상세계의 표상으로 보인다. 다리 위 인물의 외투는 밝은 선홍색으로 채색되었다. 반가운 존재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다(그림4).

외나무다리는 다리 자체의 외관에 집중하기에는 그 존재가 화려하지 않다. 도리어 교량 외 주변 정황에 더 관심이 간다. 외길 외나무다리 위 인생, 근본적으로는 혼자 걸어가더라도 주변의 수려한 경치를 감상하며 즐겁게 거닐기, 내 앞 내 뒤의 사람들과 암묵적인 동행으로 외로움 벗어나기, 여러 외길이 한 곳에서 만나는 교차점에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들과 가볍게 인사 나누기, 무엇보다도 내가 걷는 이 길이 꽃길이라 생각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 외길을 힘차게 걸어가길 응원한다(그림5). 🇰🇷

2) 문지영(2022 초판 3쇄, 2012 초판), 『상상 그 이상, 조선시대 교량의 비밀』, 서울: 도서출판 씨아이알, pp.194-213
3) 김창원(2010), 『산수화와 산수시조에서 자아와 세계의 갈등구도와 그 형상화 방식』, 한국시조학회, p.170



〈그림5〉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외나무다리 위 인생길 (©문지영 그림)